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 조성되나

금융研, 연구용역 마무리 최종보고서 금융위에 전달 3월 이후 금융중심지추진위 개최...금융위 결론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1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연구보고서 최종본을 제출받아 오달자나 통계, 편집 등에 잘못된 게 있는지 꼼꼼히 감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혁신도시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지역공약을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지난해 5월 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번에 연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연구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의 지난 10년간 성과와 향후 과제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 검토 필요성 ▲전북



전북 금융타운 조성 사업의 핵심으로 전북혁신도시에 설립 계획중인 전북금융센터(JBFC) 조감도. <전북도 제공>

혁신도시 상황과 금융중심지로서의 타당성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2주 간의 감수를 진행한 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연구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위원들의 보고서 검토와 일정 조율에도 최소 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해 다음 위원회는 3월 이후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중심지추진위는 금융위 산하 기구로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 민간 인사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금융위가 최종 지역을 선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이 워낙 정치적·지역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공고히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을 추가 지정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 금융중심지의 기능 약화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송년 세미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서울과 부산으로 (기존 금융중심지가) 나눠져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며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나섰지만 실제 성적표는 초라하다. 세계 주요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IC)에서 서울과 부산은 100개 도시 가운데 지난해 9월(하반기) 기준으로 각각 33위, 44위에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한국거래소를 부산으로 내려보냈지만 이를 뒤따라간 증권사는 하

군산시, 맞춤형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 국비 45억 확보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등 13개분야 시행

군산시가 고용·산업위기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비 45억을 확보해 맞춤형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1개 ▲지역공간개선형 지원사업(환경정비 등) 11개 ▲어린이등하굣길 안전도우미 1개 등 총 3개 유형 13개이다.

대상은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으로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8일 까지가.

참여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1순위 실직자와 그 배우자, 2순위는 취업 취약계층 순이다.

기본 근로조건은 사업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로 이뤄지며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주차료 면제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사진)이 12일부터 입장객의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선운산은 1988년부터 일반 차량은 2000원, 대형 차량은 3000원의 주차료를 받아왔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산은 봄에는 동백, 여름에는 계곡, 가을에는 단풍과 상사화, 겨울에는 설경 등으로

17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군은 방문객들의 주차료 지적에 따라 무료화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주차료를 없애기로 했다"며 "선운산도립공원을 더욱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정읍시, 여성농업인 건강관리·문화 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3월말까지 신청 받아

정읍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말까지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25세 이상·만 75세 미만(단 결혼한 만20세 이상·만24세 이하 지원가능)여성 농업인이다.

또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임업·어업)이어야 한다.

지원된 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는 4월초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부터 여성농업인 건강·문화활동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드는 농협시지부를 통해 발급된다.

시는 올해에는 전년도에 만70세 미만인던 지원연령을 만7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보조금액도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으로 전년도보다 3만원을 증액지원해 관광 여행사, 스포츠용품,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수영장, 서점, 사진관, 안경점 등 37개 업종, 1844점포에서 사용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열악한 문화생활과 농업·농촌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더 많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도서관·복지관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발굴 전북도 'SOC 추진단' 구성

전라북도가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추진단'을 구성해 도서관과 복지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발굴에 나선다.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은 도로·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간 시설이 아니라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분야다.

추진단은 여가와 건강·복지·환경·건설안전 등 7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는다.

추진단은 일선 시·군과 공조해 정부 정책이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올해 정부가 전국 공모를 통해 배정하는 사업을 확보하는 역할도 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준다

남원시가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을 준다.

보험 기간은 오는 1년간이며 매년 갱신할 계획이다.

남원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거나 7일 이상 입원하면 최고 2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자전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보았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며 "좀 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35개洞에 법률홈닥터 제도 운영

전주시는 법무부와 함께 올해도 관내 35개 모든 동(洞)에서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한다.

경제적·시간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분기별로 1회 이상 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법률 상담과 교육, 문서작성 등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법률홈닥터는 지난해 총 770건의 법률 상담서비스를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법률홈닥터 사무실(063-281-0309) 또는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037)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 제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삶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여수 땅,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의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3605-5000